

지상파 채널 시즌제 드라마 활성화 될까



KBS가 '추리의 여왕'으로 첫 시즌제 드라마에 도전한다. 그간 케이블 채널에서만 도전해 왔던 시즌제 드라마에 지상파 채널도 속속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시즌제 드라마는 tvN의 '박재혁'은 영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드라마에서 도입된 시즌

제는 본래 사전에 제작한 시즌의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 하지만 국내 드라마 제작 실정에서는 시리즈로 제작하는 경우를 시즌제라고 칭한

미세스캅2, 스토리 연속성 외 많은 아쉬움 남겨 추리의 여왕, 주연 배우 출연...모든 조건 만족

다. 시리트로 제작하더라도 '학교', '하이리스'와 같이 스토리의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는 작품들은 시즌제 드라마로 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가장 처음 지상파 채널에서 이러한 시즌제 드라마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SBS '미세스캅2'. 하지만 '미세스캅2'는 스토리의 연속성은 가졌지만 김민중을 제외한 대거의 배우들이 교체되는 탓에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 작품이기도 했다.

때문에 권상우, 최강희 두 주연이 모두 출연 확정이 된 KBS 2TV '추리의 여왕'의 시즌 2 제작은 모든 조건에서 시즌제 드라마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즌 1 종영 당시 유실록(최강희 분)과 하완승(권상우 분)이 각자의 일상에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열린 결말을 보여줬

던 것만큼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상파 채널을 제외하고도 많은 케이블·중편 드라마들도 이미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 중이다. tvN은 최초 시즌제를 도입한 방송사답게 활발한 시즌제 드라마 제작에 앞장섰다. '식샤를 합시다', '로맨스가 필요해' 등을 방영하며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OCN 또한 tvN 못지 않은 시즌제 드라마의 명가이기도 하다. OCN은 그동안 '신의 퀴즈', '베프이어 검사', '특수수전 전담반 TEN', '저음' 등의 시즌제 드라마들을 제작해왔다.

중편채널 JTBC 또한 '청춘시대'의 시즌 2 제작에 도입함으로써 대열에 합류했다. 시즌제 드라마는 우선 본편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두터운 마니아층의 시청률을 끌어 잡을 수 있고, 장기

적으로 본다면 다음 시즌으로 이어질 때도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팬들의 입장에서 시즌제 드라마는 작품의 짧은 분량에 아쉬워했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팬들과 방송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즌제에 익숙해지지 않은 국내 시청자들의 현실과 편성의 문제에서 벽에 부딪혔던 것도 현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영국 드라마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예능프로그램의 시즌제 역시도 큰 호응을 받는 것이 시즌제 드라마 제작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지상파 최초로 동일 배우, 동일 스토리의 시즌제 드라마가 제작확정이 된 만큼 '추리의 여왕' 팬들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과연 '추리의 여왕' 시즌 2가 큰 활약을 펼치며 지상파 시즌제 드라마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범인은 너!" 반환점 돈 '폼위너', 김선아 살해 용의자4



'폼위너는 그녀'가 반환점을 돌아 이제 종영까지 10회를 남겨두고 있다. 그간 박복자(김선아 분)이 안태동(김용건 분)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던 후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박복자를 죽인 범인을 찾는 것이다.

JTBC 금토드라마 '폼위너는 그녀' (극본 백미경, 연출 김윤철)는 첫 방송에서 결말부터 보여주며 시작한 독특한 드라마였다. 박복자가 누군가가 내리친 벽돌에 머리를 맞고 파를 흘리며 죽은 장면이 이 드라마의 첫 장면이었다. 처음부터 박복자의 운명을 공개하고 시작한 것. 방송 초반에는 박복자와 극 중 인물 간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범인이 누구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박복자가 여러 인물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갈등이 유발됐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시청자들은 박복자와 인물들의 관계를 보며 범인을 예상하고 있는 중. 10회까지 방송된 가운데 어느 캐릭터가 용의자 상성에 올라있는지 네 명으로 추려봤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캐릭터는 박주미(서정연 분), 안재구

기가 총분하다.

안재구는 안태동 집안의 맏나니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재구는 박주미처럼 박복자를 싫어하는 인물이다.

동생 안재희(오나라 분)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안재구는 박복자가 안태동을 유혹해 결혼한 것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기싸움을 하다 허공에 총을 쏘고 방수(황효은 분)를 시켜 경찰에 신고 결국 안태동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재석(정상훈 분) 또한 용의자로 볼 수 있다. 안재석은 우아진이 지원하는 화가 윤성희(이태민 분)와 불륜관계다. 이를 안 우아진은 질투에 빠졌고 안재석은 윤성희와 계속 만나겠다고 했다. 결국 박복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우아진에게 우아진 대신 자신의 손을 더럽히겠다고 하면서 윤성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

거기다 박복자는 안태동에게 안재석의 외도사실을 알렸다. 이에 안재석은 크게 분노했는데 박복자가 간병인이 아닌 세어머니가 된 이상 박복자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연녀 윤성희에게 폭행을 가해 분노한 안재석도 용의자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우아진도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박복자는 우아진에게 호감을 표했고 우아진은 박복자에게 도움도 받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박복자를 대하고 있다. 박복자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 박복자가 계속해서 평화로웠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우아진의 살해당도 있다. 과연 이들 네 명 중 범인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의 인물이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자친구, 내달 1일 컴백 확정...미니앨범 '페러럴' 발표



걸그룹 여자친구가 8월 1일 컴백을 전격 확정했다. 여자친구는 20일 오전 10시, 공식 SNS를 통해 다섯 번째 미니앨범

'페러럴 (PARALLEL)'과 발매일인 2017.08.01 18:00PM에 담긴 컴백 예고 이미지를 깜짝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여자친구의 컴백은 지난 3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디 어웨이킹(The Awakening)' 이후 5개월 만이다. 특히 여자친구는 이번 컴백으로 데뷔 후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한다.

특유의 건강하고 청량한 매력과 트레이드마크인 파워풀한 칼군무로 '파워 청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여름과 최고의 공감을 보여준 여자친구가 또 한 번 여름을 맞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여자친구는 2015년 7월 '오늘부터 우리는'과 2016년 7월 '너 그리고 나'를 히트를 시킨 만큼 2017년 여자친구표 썸머송 탄생 기대를 한다.

한편, 여자친구는 8월 1일 오후 6시 컴백을 확정하고 컴백 준비에 바차를 가하고 있다.

김준현X임원희 '집사가 생겼다' 공식 포스터 공개



'집사가 생겼다' 공식 포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20일 올리브TV 신규 프로그램 1기 1집사 홈 리얼리티 '집사가 생겼다' 측은 유쾌한 공식 포스터

를 공개했다.

'집사가 생겼다'는 생활밀착 라이프스타일 엿보기 프로그램으로 바쁜 현대인의 집에 한국형 맞춤 집사가 방문하여 집안을 돌봐주는 신개념 집밥이다. 의뢰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보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집사 사이의 신선한 케미가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준현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MC이자 집사들을 관리하는 집사장으로서, 임원희, 장혁진, 신승환, 신원희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집사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공개된 '집사가 생겼다' 공식 포스터에는 집사장 김준현과 4인 집사의 각기 다른 매력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준현은 집사와 의뢰인 사이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표현하듯 믿음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든든한 맞춤형 임원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평소 싹싹 9단으로 불리는 장혁진은 곧이라도 의뢰인을 위한 요리를 똑딱 만들어낼 것 같은 프로같은 포즈로 눈길을 끈다. 명품 조연으로 유명한 신승환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재치있는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낸다. 비주얼과 예능감을 모두 갖춘 연기파 신원희는 환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비주얼 집사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포스터에서 드러나는 매력만큼이나 다양한 이들의 능력이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 지 궁금증을 더한다.

한편 '집사가 생겼다'는 오는 8월 7일 오후 8시 10분 올리브TV와 tvN에서 동시 첫 방송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음력 5월 28일)

- ▶**황소** 36년생 행운있는 날이다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돼지** 37년생 행운이 온다.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양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사슴** 39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51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3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5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7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물고기** 40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52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64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6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8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물소** 41년생 계약은 금물이다. 53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5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7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9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말** 42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황소** 43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5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7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9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91년생 꿈을 접지마라.

- ▶**황소**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물고기** 33년생 행운 맛을 준비를 하라.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57년생 눈치껏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81년생 욕심을 버려라 뜻을 이룬다.
- ▶**물소** 34년생 건강에 주의하라.46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58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0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2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물소** 35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47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59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1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3년생 꿈을 접지마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